

보금자리론 요건 강화 연말까지만

금융위 "실수요자 혜택 주는 쪽 개편 추진... 연말 발표 예정" ... 원상복구 장담 못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내년 2월 이사를 앞둔 A씨(30)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로 자금 마련 계획을 세웠다. 뚜렷한 상환 계획 마련이 가능한 것은 물론 금리인상에 대한 리스크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이 강화돼 걱정이이다.

A씨는 "분양 받은 아파트 값은 3억원이 넘고 부부소득을 합치면 600만원을 초과해 강화된 조건에는 맞지 않는다"며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A씨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빈번하다. 한마디로 가부를 따부러지게 말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보금자리론을 포함해 정책금융 전반을 당초 취지에 맞게 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년에도 큰 골격의 변화는 없다며 현재의 강화된 조건은 연말까지만 적용된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20일 "보금자리론 한도소진으로 대출조건이 강화됐지만 내년부터는 원상복구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2017년부터 대출 요건이 강화되기 전 조건을 적용해 안심전환대출을 다시 운영할 방침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운영하더라도 상품 구성 등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개통 부탁드립니다" 애플의 아이폰7(iPhone7) 출시일인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LG유플러스 강남지역점에서 1호 가입자인 최홍식씨(사진 오른쪽)가 개통을 하고 있다.

강화된 대출 요건은 내년부터 다시 완화될 전망이다"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은 주택자금담보권(MBS)을 발행해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며 "때문에 올해 6조원의 추가 운영도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세워두면 얼마든지 보금자리론을 운영할 수

있고,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도 도모할 수 있다. 그렇다면 10조원 한도 소진 이후 보금자리론을 제한하는 이유가 뭘까? 금융위 관계자는 "주금공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파악한 뒤 세운 계획이 10조원이었다"며 "좋다고 한도 끝도 없이 발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내년에도 10조원 한도가 넘으면 규제할지, 아니면 내년초부터 적용될 새로운 방안을 내놓을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셈이다.

내년 개편안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어떤 방식이 좋을지 고민해 본 뒤 연말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아이폰7, 호주서도 발화사고

호주에서 아이폰이 '켈릭시노트' 처럼 발화했다는 사고가 현지 언론에 보도돼 주목된다.

21일 IT 전문매체 폰 아래나와 호주 야후7뉴스 등에 따르면 호주 서핑강사 맷 존스는 구매한지 1~2주 정도 되는 아이폰7을 넣은 옷을 차량 내부에 두고 내렸다가 돌아와보니 차량 내부가 불에 탔다는 신고를 했다.

그는 "바지 속에서 잤더니 나오고 있었고, 이를 풀어보니 전화기가 녹고 있었다"며 "의심할 것도 없이 화재의 원인은 아이폰7"이라고 강조했다.

존스는 구입한 이후 이를 떨어뜨리거나 외부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 측은 이번 사고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발화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중고차 침수 여부 확인' 이렇게 하세요

매매업자 통해 거래 · 개인간 거래시 환불 등 명시... 구매 전 차량 상태 확인 필수

태풍 '차바'로 침수됐던 중고차가 정상 차량으로 둔갑해 유통되면서 제2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반드시 침수 전수조회, 상태 점검 등을 해야 하고 가능한 개인보다는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좋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차량 침수 여부는 우선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서비스(www.carhistory.or.kr) 중 '무료침수전수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정비 시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차량은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 거래보다는 중고

차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매매업자를 통한 침수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이 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계약 전에 서면으로 반드시 고지하도록 돼 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범위 내에서 보증 받을 수 있다. 주행거리와 사고, 침수 여부가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매매계약 해제도 가능하다.

부득이하게 개인간 거래를 할 경우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사전에 고

지하지 않은 침수·사고 이력 발생시 양도인이 환불 또는 손해배상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구매 전 차량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먼저 히터나 에어컨을 작동시켜 곰팡이, 녹, 진흙 냄새 등 악취가 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안전벨트를 끌 때까지 닫혀 있거나 이물질 등에 의한 오염, 변색이 있는지 봐야 한다.

시거잭, 시트 및 스프링, 차량바닥 마감재 밑, 트렁크 바닥, 연료주입구 및 퓨즈박스 등에 진흙이나 부식이 있다면 침수 차량으로 의심해야 한다. /뉴시스

항공기 지연운항 개선 방안 마련

국토부, 예정운항시간 늘리고 예비기 확대 등 내용 담야

정부가 항공기 지연에 따른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간 예정운항시간을 늘리고 예비기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항공기 지연운항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는 이용객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항공기 운항 프로세스 개선, 항공사별 지연정보 공개, 공항·항공로 등 기반시설 확충,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등이 담겨있다.

우선, 혼잡 노선인 김포-제주노선 비행시간 증가추세를 반영해 항공기 구간 예정운항시간(Block Time)을 늘려 지연운항 감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30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 지연율이 높은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의 김포-제주 노선의 구간 예정운항시간을 현행 65분에서 70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내년 하계기간부터 예정운항시간을 70분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한 항공기가 연쇄적으로 지연운항될 경우, 예비기로 대체 운항할 수 있도록 올해 동계기간부터 항공사별 예비기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포-제주 등 혼잡항로를 반복적으로 운항하는 경우, 중간에 비혼잡노선을 운항해 선행편 지연이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스케줄 분리 조정도 추진된다.

더불어 중국, 동남아 항공로의 혼잡 완화를 위해 항공로 복선화를 추진한다. 항공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 기반시설(인프라)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국내선의 지연운항 현황을 보면 2014년 7.5%, 2015년 10.4%, 올 8월 기준 19.2%로 증가 추세다. 특히 진에어,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8월까지 지연율이 2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선도 2014년 2.8%, 2015년 3.2%, 올 8월 기준 5.0%로 지연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의 올해 지연율은 5%를 초과했다.

국토부가 밝힌 최근 항공기 지연율 증가 원인은 중국, 동남아, 제주노선 운항 증가로 인한 출·도착 지연 및 후속 항공편 접속지연 증가에서 기인한다.

이밖에 ▲선행편 지연시 촉박한 스케줄로 접속지연 급증 ▲동일 항공기 혼잡노선(제주-김포 등) 반복 운항에 따른 이전 지연 해소 곤란 ▲공항 주 가장 부족 ▲보안검색 강화 등에 따른 승객 탑승지연 ▲피크시간대 카운터 등 시설 부족 등을 지연운항 원인으로 꼽았다. /뉴시스

MS 주가, '클라우드' 실적 따라 출렁

소프트웨어 등 주력부문 흔들리고 대체 사업은 아직 불투명

윈도 운영체제를 만드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주가가 올들어 '클라우드 부문'의 실적표에 따라 출렁거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하는 '클라우드'가 빌 게이츠가 창안한 소프트웨어 공룡기업의 새로운 '캐시카우(수익원)'로 부상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들어 MS의 클라우드 사업 부문 실적 발표 이후 이 회사의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뚝 떨어진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클라우드에는 ▲프로그래밍을 원거리 서버 등에서 불러내 사용하거나 ▲개인용 컴퓨터의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는 등의 서비스를 일컫는다.

WSJ에 따르면 이 회사의 주가는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밑돈 지난 4월, 올 들어 하루 하락폭으로는 가장 많이 떨어졌다. 반면, 이 분야 실적이 호조세를 보인 지난 7월 이후에는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MS 주가가 클라우드 부문 실적에 좌우되는 것은 이 회사를 향한 시장의 기대와 우려를 보여준다. 소프트웨어 등 주력부문이 흔들리고 있으나, 윈도 등을 대체할 새로운 사업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MS는 그동안 윈도·오피스 등 주력인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고성능 스마트폰이 개인용 컴퓨터를 대체한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노키아 인수 등 모바일 부문에도 출사표를 던졌으나 이 분야에서도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다.

이 회사가 클라우드 부문에서 약진한 이면에는 운영체제, 오피스 등을 판매하며 다져온 기업 고객과의 네트워크가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WSJ은 "MS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개인용 컴퓨터 관련 사업에 치우친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는 유망 분야(bright spot)"라며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판매에서 '실시간 컴퓨터 서비스'로 사업의 외연을 효율적으로 넓혀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